

은/는

주제 표시 — ~은/는, ~로 말하자면

문장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를 알려 줍니다. 형태는 명사가 받침으로 끝나는지에 따라서만 정해지지만, 은/는을 이/가 대신 고르면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요점이 달라집니다.

■ 결합 방법

명사 종류	형태	예
받침으로 끝남	은	학생은
모음으로 끝남	는	친구는
에, 에서, 한테 뒤	뒤에 겹쳐 붙음	학교에서는
이/가를 대신함	함께 쓰지 않음	친구는 — 친구가는(×)
을/를을 대신함	함께 쓰지 않음	김치는 — 김치를는(×)
구어 축약	저는 → 전	나는 → 난, 이것은 → 이건

■ 언제 쓰나요

은/는은 이야기의 틀을 세웁니다. 듣는 사람에게 “지금부터 이것에 대해 말하겠다”고 알리고, 그 뒤에 오는 내용은 모두 그 틀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. 자기소개를 이것으로 시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: 저는 마이클 이에요는 말하는 사람을 한 동사의 문법상 주어로 그치지 않고 대화의 주제로 세웁니다.

일상에서는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. 첫째, 주제를 나타냅니다(앞에서 본 용법). 둘째, 대조를 나타내며, 문장의 다른 자리에 은/는이 한 번 더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: 커피는 좋아하지만 차는 싫어해요. 셋째, 일반적인 사실이나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나타냅니다: 고래는 포유류예요.

대조의 기능은 늘 숨어 있습니다. 보통 이/가나 을/를이 올 자리에 은/는을 붙이면, 한국어 화자는 “...다른 것은 아니지만”이라는 뜻을 함께 읽어 냅니다. 의도했다면 유용하지만, 의도하지 않았다면 오해를 부릅니다.

■ 예문

- 1 저는 한국어를 공부해요.
- 2 오늘은 시간이 없어요.
- 3 형은 회사원이고 동생은 학생이에요.
- 4 커피는 마시지만 술은 안 마셔요.
- 5 이 책은 어때요?
- 6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.

■ 비교

이/가

이/가는 동작의 주체를 가리키며 그것을 새로운 정보로 제시합니다. 은/는은 대화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틀을 세우고, 그것을 이미 알려진 것으로 다룹니다. 가장 확실한 판별법은 질문입니다. 대답에서 새로운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이/가가 붙습니다.

누가 왔어요? → 마이클이 왔어요. (대답이 마이클) / 마이클은 왔어요. (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이클은 왔다)

두 번째 절 없이 나타나는 대조

목적어 자리에 은/는이 하나만 쓰여도, 대조되는 대상을 말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대조의 뜻이 생깁니다. 학습자는 평범한 서술을 하려다가 실수로 이런 문장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.

저는 김치를 좋아해요. (김치를 좋아한다) / 저는 김치는 좋아해요. (김치는 좋아한다 — 다른 음식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포)

도

도는 ‘역시, 또한’의 뜻이며, 은/는과 마찬가지로 이/가와 을/를 뒤에 겹쳐 붙지 않고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. 두 조사는 한 명사에 함께 붙을 수 없습니다.

저도 갈게요. (나도 가겠다) / 저는도(×)

■ 주의

× 누가 왔어요? — 마이클은 왔어요.

○ 누가 왔어요? — 마이클이 왔어요.

대답이 빠진 정보를 채워 주므로 이/가를 씁니다. 여기서 은/는을 쓰면 듣는 사람이 묻지도 않은 다른 누군가와 마이클을 대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.

× 친구은 왔어요.

○ 친구는 왔어요.

선택은 오직 명사의 마지막 글자에 따라 정해집니다. 친구는 모음으로 끝나므로 는을 씁니다.

× 저는 김치를는 좋아해요.

○ 저는 김치는 좋아해요.

은/는은 을/를 뒤에 붙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. 이/가도 마찬가지로입니다. 다만 에, 에서, 한테 뒤에는 겹쳐 붙습니다.